<u>외</u>환실무론

제5장 환율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제5장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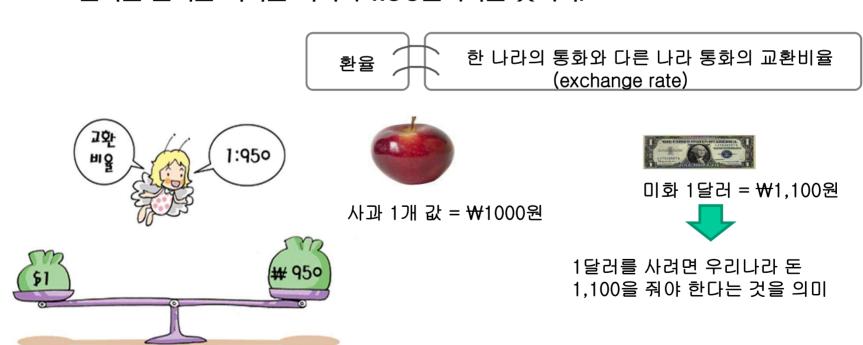
- 1. 환율이란
- 2.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
- 3.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4. 우리나라의 환율구조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외부기관 강의지원) 02-759-4647전북본부 업무팀 063-250-4105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063-250-4081 노재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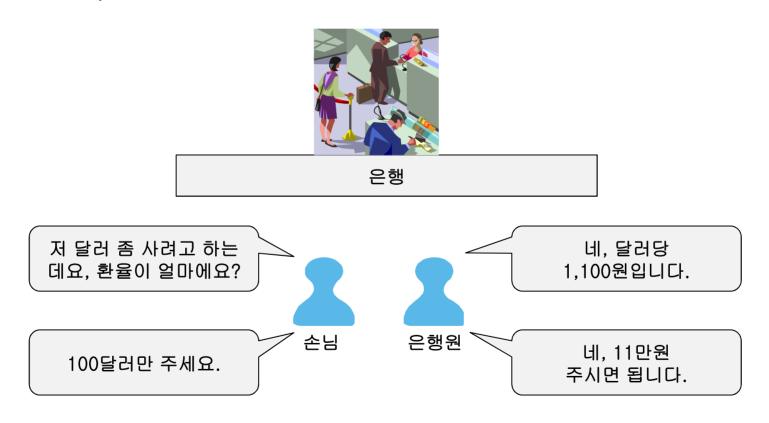
- 1. 환율과 외환시장
 - 1) 환율의 의의와 종류
 - 2)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 3) 환율의 변동요인 및 동향
 - 4) 최근 외환시장의 이슈
- 2.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 1)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 2) 옵션과 스왑
 - 3) 선물과 선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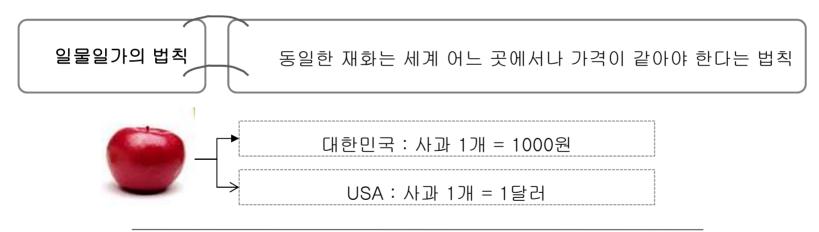
- ❖ 환율(Exchange Rate)이란?
-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exchange rate)을 말한다.
-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를 살 때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매겨진 거와 마찬가지로 달러가 필요할 때 은행에 가면 1달러를 사는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 가격이 매겨진 것과 같다.
- 예를 들어 달러환율이 1100원이라고 한다면 1달러를 시는데 우리나라 돈 11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달러화를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 한다면 달러화 하나의 가격이 1100원이라는 뜻이다.



- 사례
- 외국환 은행에 달러를 바꾸러 갔다고 가정하지. 손님과 은행원 사이의 대화를 정리해보면 1달러와 1100원을 교환한다는 의미, 즉, 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은 1,100원이라는 의미이다



- 동일한 재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법칙
- 일물일기의 법칙(Law of Price)라고 한다.
- 예를 들면, 똑같은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과가 우리나라에서는 1000 원이라면, 미국에 가서도 똑같이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제로 미국에 가보니 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1000원과 1달러는 같은 통화가치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즉, 1000원과 1달러는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이것이 바로 통화의 교환비율이 되는 것이다.



사과 1개 = 1000원 = 1달러

통화의 교환가치를 가짐

이러한 가설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국내 물가는 환율과 해외물가의 곱한 값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그 공식을 사과 값에 대입하면 환율은 1000원이 되는 것이다.

P(국내물가) = 환율 X P(해외물가)



대한민국: 사과 1개 = 1000원

USA : 사과 1개 = 1달러

1000원 = 환율 X \$1 → 환율 : 1000원



- 일물일가의 법칙으로 나라 간의 환율도 구할 수 있다.
- 그리고, 이 법칙을 개별물건 대신에 그 나라의 물가수준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다.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구매력차이를 반영해서 결정되는데 똑같은 상품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은 가격수준에서 결정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일몰일가의 법칙 특징

- 나라 간의 환율을 구할 수 있음
- 법칙을 개별물건 대신에 그 나라의 물가수준으로 적용한 것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구매력차이를 반영해서 결정

똑같은 상품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은 가격수준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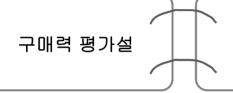
- 구매력 평가설을 근간으로 각 나라에 판매되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어 느 나라의 환율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고 있는지 알이보도록 하자.
- 세계적인 햄버거회사로 M사의 빅맥버거를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빅맥버거는 세계의 어느 곳에 가든지 살 수 있으며, 크기와 값이 비슷하다.

구매력 평가설

각 나라에 판매되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어느 나라의 환율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는지 확인



그로 인해, 각국에서 팔리는 빅맥의 가격을 통해 물가를 예측할 수 뿐만 아니라, 환율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나라에 판매되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어느 나라의 환율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는지 확인



1986년 9월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매붙기마다 각 나라의 구매력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빅맥지수(Big Mac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구매력평가설을 근간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판매되는 빅맥버거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의 환율이 고평가 되고 저평가 됐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위	국가명	빅맥지수 (\$)	기준년월	순위	국가명	빅맥지수 (\$)	기준년월	
i	🔤 베네수엘라	7,92	2012, 07	23	☞ 대한민국	3,21	2012, 07	A
2	# 노르웨이	7,06	2012, 07	24	☑ 파키스탄	3,01	2012, 07	
3	#■ 스웨덴	6,94	2012, 07	25	= 라트비아	2,94	2012, 07	
4	▶ 스위스	6,56	2012, 07	26	조 이스라엘	2,92	2012, 07	
5	☑ 브라질	4,94	2012, 07	27	≥ 필리핀	2,80	2012, 07	
6	== 콜롬비아	4,77	2012, 07	28	= 리투아니아	2,74	2012, 07	
7	☎ 오스트레일리아	4,68	2012, 07	29	■・■ 멕시코	2,70	2012, 07	
8	== 덴마크	4,65	2012, 07	30	조 사우디아라비아 조 사우디아라비아	2,67	2012, 07	w

빅맥지수

구매력평가설을 근간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판매되는 빅맥버거의 가격을 비교하여, 어느 나라의 환율이 고평가 되고 저평가 됐는지 분석

- 예를 들면, 미국현지 빅맥버거의 평균가격은 \$3.71달러이고, 한국의 빅맥버거 가격은 3,400원이라고 하자.
- 이때 1달러당 환율이 1,121이였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빅맥버거 가격 3,400원은 달러로 치면 3.0달러 정도 밖에 안 된다.
- 즉, 한국 돈 34OO원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빅맥버거 하나를 못 사먹는다는 뜻이다.
- 왜, 그럴까? 그건, 현재 환율의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더라고 할 수 있다.



USA: 빅맥버거 1개 = \$3.71

대한민국: 빅맥버거 1개 = 3400원

환율: 1달러당 1121원

└> 3400원 / 1121원 = \$3

3400원으로 미국에서는 사 먹을 수 없음

13

- 그렇다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한다면, 환율은 얼마가 되어야 적당할까?
- 환율 공식에 대입하면, 적절한 환율은 916.5원이 되어야 3,4OO원을 가지고 미 국에 가서 빅맥버거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빅맥지수로 판단할 경우 시장의 환율은 너무 높게 형성되어있음을 나타내며 원화가치는 18% 정도 저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USA: 빅맥버거 1개 =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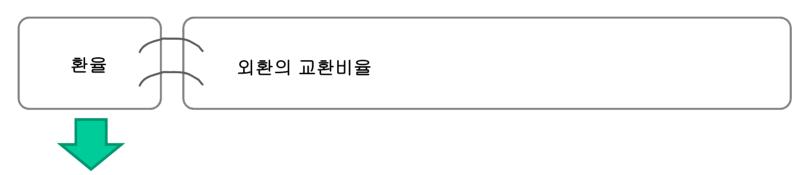
대한민국: 빅맥버거 1개 = 3400원

3400원 = 환율 X \$3.71 → 환율 : 916.5원

시장의 환율은 너무 높게 형성되고, 원화가치는 18% 정도 저평가 되었음

❖ 환율변동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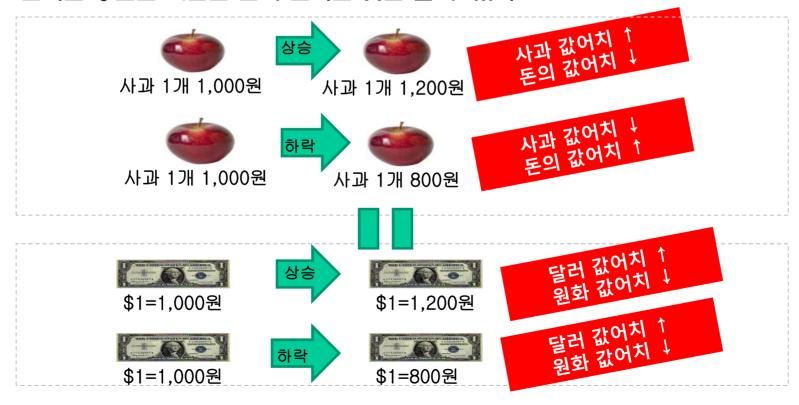
- 환율은 외환의 교환비율이다. 이러한 외환의 교환비율은 시장경제의 상황과 수 요와 궁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 예를 들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은 상승했다고 하고, 반대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하락했다고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상황과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오르내림.



- 시과 1개당 1000원이라고 할 경우 이 시과가 가격이 올라서 1200원이 되었다면 이 경우 시과의 값어치는 높이지고, 상대적으로 돈의 값어치는 낮이진다.
- 반대로 시과 하나에 1000원 하던 것이 8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시과의 값어치는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돈의 값어치는 높이진다. 예전에는 1000원을 줘야지 시과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과를 하나 사고도 돈이 남기 때문이다.
- 이제 달러를 생각해보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할 경우, 시과라는 말 대신 달러를 넣으면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과 1개당 1,000원

사과값 1000원	1200원으로 상승	800원으로 하락
사과의 가치	사과가치 상승	사과가치 하락
내 돈의 가치	내돈 가치 하락	내돈 가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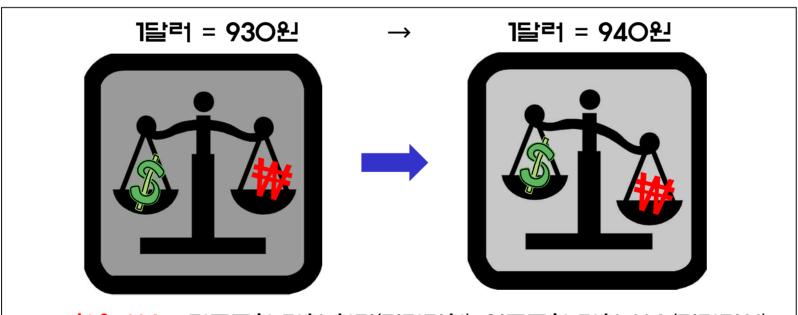


\$1=1000원

환율1000원	환율1200원으로 상승	환율800원으로 하락
달러의 가치	달러가치 상승	달러가치 하락
원화의 가치	원화의 가치 하락	원화의 가치 상승

❖ 환율(Exchange Rate) 상승 및 하락이란?

- 일국의 통화와 외국통화간 교환비율로서 양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표시 하는 가격변수를 말함
- ex) 달러/원 환율 상승 = 원화기치 이락/달러기치 상승 = 원화 평기절하 (930/U\$ → 940/U\$)
- 달러/원 환율 히락 = 원화기치 상승/달러기치 히락 = 원화 평기절상 (940/U\$ → 930/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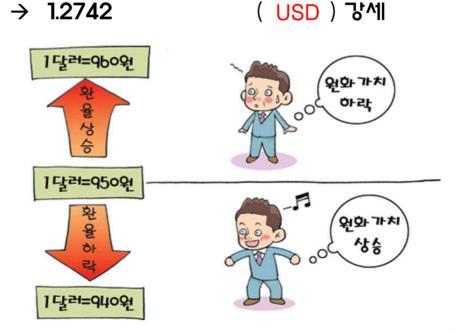
▶을 상승 : 자국통화 가치 하락(평가절하), 외국통화 가치 상승(평가절상)

6 EUR/USD = 1.3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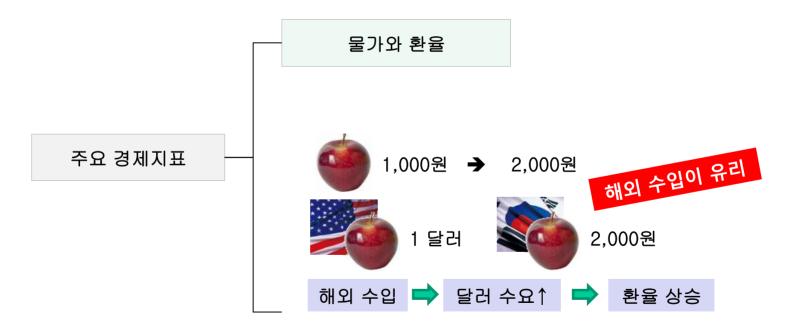
◆ 환율의 변동이 이래와 같다면 어떤 통화가 강세 통화인가?

예) EUR/USD = 1.4000 **→ 1.5000** (EUR) 강세 ① USD/JPY = 89.70 \rightarrow 90.20 (USD) 강세 2 GBP/USD = 1.454O **→ 1.4775** (GBP) 강세 (USD) 강세 3 USD/KRW = 1,333.20→ 1,338.40 4 USD/CHF = 1.1780 **→** 1.1963 (USD) 강세 **(5)** AUD/USD = 0.6268 → 0.7055 (AUD)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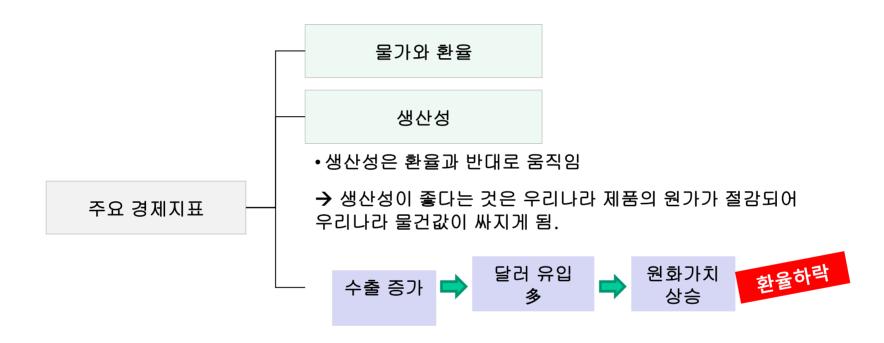
→ 1.2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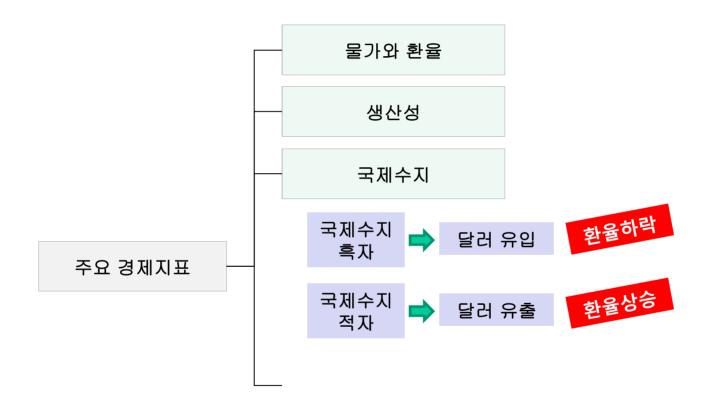
- 물기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환율도 상승하게 된다.
-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한다면, 사과 값이 1000원이었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해서 2000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과하나에 1달러면 된다.
-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달러가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달러수요가 중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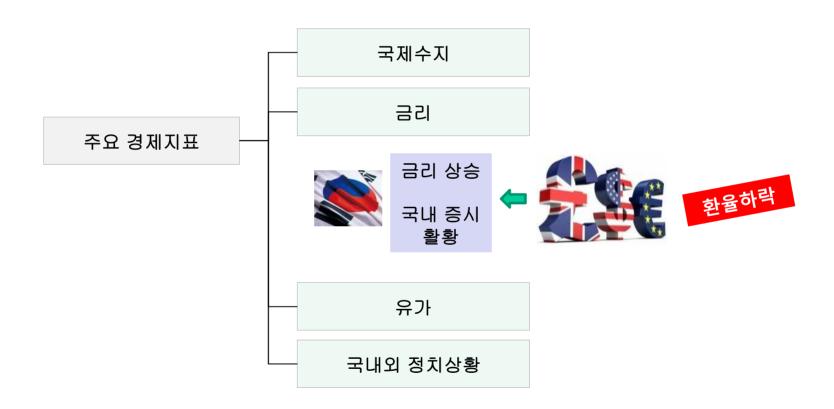
- 생산성은 환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 생산성이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의 원가가 절감되어 우리나라 물건값이 싸지게 되는 것이다. 즉,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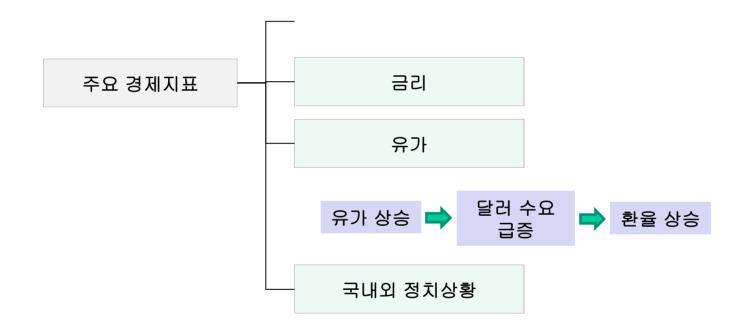
국제수지가 혹자이면 달러가 시장에 풍부해지므로 환율은 하락하고, 국제수지
가 적자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환율은 상승한다.



■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고 국내중시가 활황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돈을 싸들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고 온 달러가 우리나라에 넘치게 되어 달러는 흔해지고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유류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환율이 오르게 된다. 기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시중에 있는 달러는 제한적이므로 달러가 귀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달러수요가 많아져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정치상황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정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화보다는 달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나 핵 문제 등이 뉴스에 나오면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볼 수 있는 것이다.



- •사람들은 불안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어함
- •많은 사람들이 원화보다 달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함
- →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나 핵 문제 등이 뉴스에 나오면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발생

❖ 혼율변동의 원인

-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 1.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침
 - ① 해당국기와 상대국의 물기수준 변동 :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통화기치는 재화, 서비스, 지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므로 결국 환율은 상대 물가수준으로 가능되는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 ② 생산성의 변화 : 예를 들어 한나라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향상(악화)될 경우 자국통화는 절상(절학)됨.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재화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더 싼 값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가치는 올라가게 됨
- 2.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대외거래, 거시경제정책 등을 틀 수 있음
 - ① 대외거래 결과 국제수지 혹자일 때는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므로 환율은 하락하고, 적자로 외환의 초과수요가 지속되면 환율은 상승.
 - ②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통화공급이 감소하여 원화의 상대적인 공급이 줄어들어 환율이 하락(원화절상)됨

- 3. 단기적으로 환율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 변동, 각종 뉴스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음.
 - ①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인 거래에 의해 실제 환율의 변동이 초래.
 - 예를 들어 시장참가자가 환율상승을 예상할 경우 환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외환을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중 가하게 되어 실제 환율이 상승
 - ②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변동은 자국 통화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의 통화가 절하될 경우 자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해 외환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기대가 형성되어 자국의 통화도 절하됨
 - ③ 각종 뉴스도 시장참기자들의 기대변화를 통해 단기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일례로 2010년 5월 천안함 침몰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지정학적 위험 이 부각되자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 ④ 은행의 외환포지션 변동도 환율에 영향을 미침
 - 은행의 외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이 매도초과(외화부채 〉외화자산) 혹은 매입초과(외화부채 〈외화자산)의 한 방향으로 크게 노출될 경우 포지션조정을 위한 거래가 일어나고 그 결과 환율이 변동하게 됨.
 - 예를 들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이 큰 폭의 매도초과를 보일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현물환을 매입함으로써 환율이 상승하게 됨

환율변동 요인

참가자 들의 예측과 기대

- -참가자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등을 미리 예측하여 거래
- -권위 있는 Economist들의 예측은 환율 변동에 중대한 영향미침

경제적 요인

- 인플레이션 → 통화 약세
- 국제수지 흑자 계속 → 통화 강세
- -경제성장율 상승 → 통화강세



정치적 요인

-정치/경제적 정세 불안 →동화약세 (해당국 통화기피, 안정된 통화로 투자대체)

환율 결정

외화 수요/공급

기술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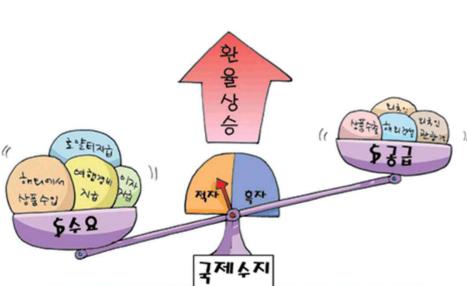
- -환율 자체의 작용에 따라 어떤 추세를 형성하면서 변화
-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는 무관

중앙은행의 정책

-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자국 통화를 보호하기 위함
- -직접개입, 지준율, 할인율 정책 사용
- -단기적으로 강력한 힘 발휘

환율변동 요인







달러화가 궁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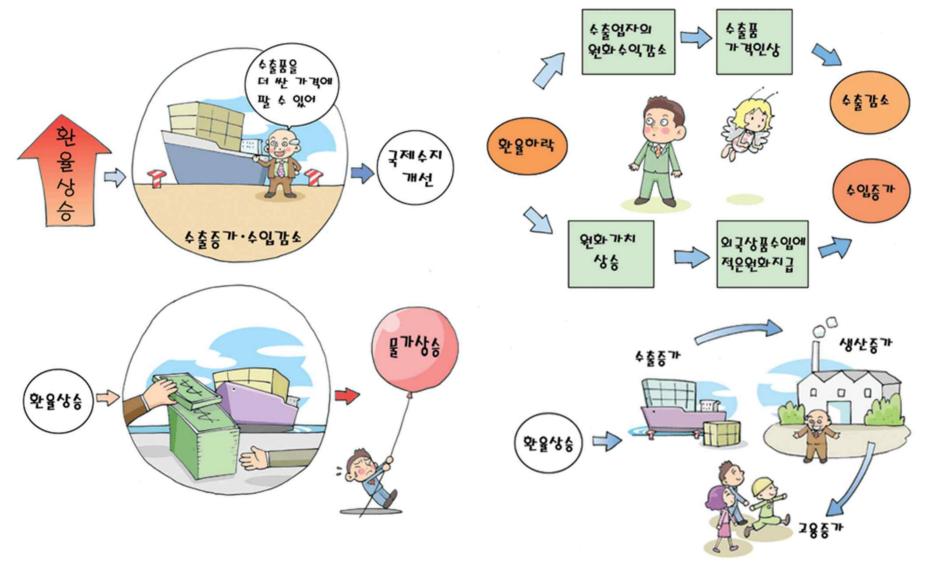
환율변동 요인

	변수	환율상승	환율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상승	
페디메티	물가	기대인플레 하락	기대인플레 상승	
펜더멘털	금리	하락	상승	
	주가	하락	상승	
디이버스	글로벌 달러	강세	약세	
대외변수	위안화	약세	강세	
정치/정책적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 부각	리스크 완화	
변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경상수지		적자	흑자	
7	다본수지	적자	흑자	
채권		기본적으로 중립	기본적으로 중립	
외국인 주식 동향		순매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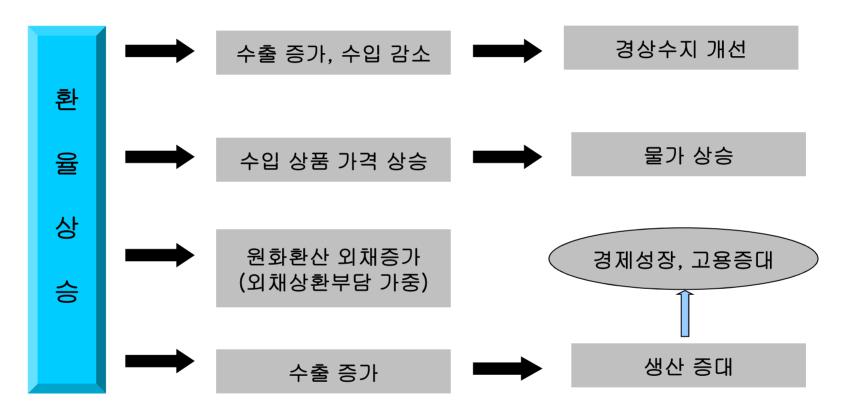
- 환율이 상승하면 시장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러가치가 상 숭했음을 의미한다.
- 1달러어치를 수출하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1,000원 원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외시장에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 반면 수입상품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게 된다. 또 수출이 중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는 좋아진다.
-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나라는 높은 환율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 라가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 또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빌린 기업은 외채상환부담이 커지게 된다. 환율이 오르면 과어야 할 돈도 환율에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구분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수출	수출상품가격 하락(수출증가) 경상수지 좋아짐
수입	수입상품 가격상승(수입감소)
국내물가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물가상승)
외자 도입기업 (외국에서 돈 빌려 쓴 기업)	원화환산 외채증가(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환율변동 영향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환율 상승 : 경상수지 개선, 생산 중대 VS. 물가 상승, 외채 부담 중가
- ✓ 한국은행 거시계량경제모형('O5)에 따르면 원화 1% 절하 시GDP 성장률은 + O.O6%p,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 O.O7%p (연평균) 변화

- 환율은 오르는 게 좋을까? 내리는 게 좋을까?
- 환율변동은 오르거나 내리는데 따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떤 사람에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본다. 따라서 전쩩으로 보면 환율은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정답은 없다.
- 그 나라의 경제체력에 맞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환율이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율이 불안할 때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환율 때문에 쓰러지는 기업이 많다. 이는 환율이 너무 높아서도 너무 낮아서도 아니다.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 환율이 등락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정답은 없음

환율이 높고 낮음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환율의 갑작스런 등락임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 불가능

- 주요한 경제지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주요 경제지표로는 물기와 환율, 생산성, 국제수지, 금리, 유가, 국내외 정치상 황이 있다.



환율의 종류

- 기준환율 · 재정환율
- 1국 통**합의 각국 통**합에 대한 환율 중에서 기본이 되는 환율인가 또는 기본적인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 환율인가에 따른 분류
- 고정환율 · 굴신환율 · 변동환율 환율의 변동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
- 은행간 환율(시장환율) · 대고객확율 거래의 상대방이 은행인가 고객인가에 따른 분류
- 매출환율 · 매입환율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른 분류
- 전신환환율 · 일람출급어음환율 · 기한부어음환율 은행이 실제로 고객과 거래하는 외국환의 종류에 따른 분류
- 현물환율 · 선물환율 외국환의 수도시기에 따른 분류
- <mark>외화표시환율(수취계정환율) · 내화표시환율(지급계정환율)</mark> 환율의 표시방법, 어느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분류

(1) 자국통화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

■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통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면 되는데, 어느 돈을 기준으로 놓고 비율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표시방법이 달라진다.

즉,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이국통화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

의 두 가지가 있다.



- 자국통화표시법은 외국통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표시법(direct quotation)이라고도 부른다.
- 예를 들면 원화환율을 US\$1=1000원, 또는 /\$ = 1000 으로 나타내는 표시방법을 말한다.
- 예를 틀어 사과 1개에 1000원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외국통화를 물건으로 놓고, 1달러 한 개에 1000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만약에 미국의 기준에서 본다면, 미국달러가 본국통화일 것이므로 1원 =O.OOO1USS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통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 (=직접표시법(direct quotation))

원화환율을 US\$1=1000원. 또는 ₩/\$ = 1000 으로 나타내는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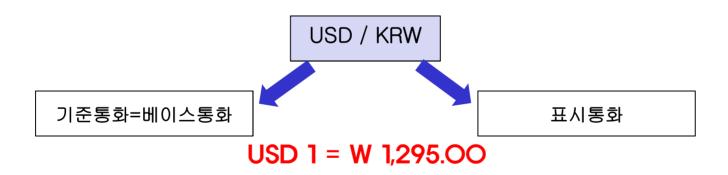
1,000원

1,000원



1원=0.0001US\$

- ① 자국통화 표시환율(Rate in Home currency)
 - = 직접표시방법(Direct Quotations)
 - 외화통화 1단위 또는 100단위(일본 엔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에 대해 100단위를 적용)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
 - 영국 등 몇 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방법



② 외국통화표시법

- 자국통화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외국통화의 단위수로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간접표시법(indirect quotation)이라고도 한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을 1원=0.0001US\$ 또는 US\$/ =0.0001으로 표시하는 것이 간접표시법이다. 제시한 대화의 예처럼, 1원에 사과 사과 1000분의 1조각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준을 자국통화 1단위를 놓고 계산하는 것이다.

자국통화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외국통화의 단위수로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 (=간접표시법(indirect quotation))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을 1원=0.0001US\$ 또는 US\$/\(\overline{\psi} = 0.0001으로 표시하는 방법



손님: 사과하나에 얼마에요?

주인: 네 1개에 1000원입니다. (자국통화표시법)

손님: 그럼 1원주면 사과 몇 개 주나요?

주인: 1원주면 사과 1000분의 1조각이겠죠 (외국통화표시법)

손님: 그럼 사과 1원어치 주세요.

주인:.....

자국통화 1단위를 기준으로 계산

■ 외국통화 표시환율(Rate in Foreign currency)

= 간접표시방법(Indirect Quotations)

한국의 경우: W1= O.OOO7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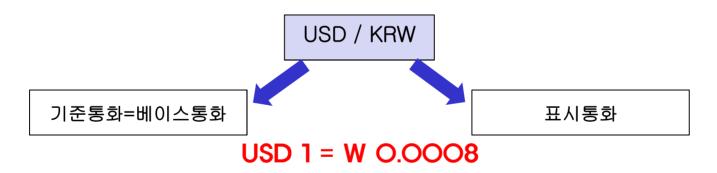
영국의 경우: GBP 1 = USD1.579O, GBP 1= EUR 1.3595

£ 1= US \$ 1.5790

■ 자국화 1단위 또는 100단위에 대한 외화의 교환대기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및 캐니다에서 사용

■ 외국통화 표시법



1. 환율이란

(British Crown Dependence = GBP(ISO 코드) = Pound Sterling = sterling(순은함) = pound)











1. 환율이란

주요통화의 약식표기

국명	통화명	약식표시	ISO/SWIFT 표기방식
미국	달러핤	US\$, U\$, USDLR	USD
영국	파운드화	£, £S, BP, STG, Sterling	GBP
독일	마르크화	DM, DMK	DEM
스위스	프랑화	SF, SFR, S.Fr.	CHF
일본	엔화	₹, JY, Yen	JPY
프랑스	프랑화	FF, FFR, F.Fr.	FRF
이탈리아	리라함	LIT	ITL
케나다	달러화	C\$	CAD
네덜란드	길더핤	DFL, HFL, DGL, GLD	NLG
대한민국	원화	Won	KRW

[·]스위스 프랑의 CHF는 라틴어인 Confoederatio Helvetica Franc의 약어

(2) European Terms & American Terms

-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에서 사용되는 외화표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기준통화에 따라 유럽식표시방법(European terms)와 미국식표시방법 (American terms)로 나뉘어 진다.



① European Terms

- 보통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에서는 1US\$=125.5O엔과 같이 미국달러화를 기준통화로 하여 환율을 표시하는 통일된 관행이 사용되고 있다.
- 이렇게 미국달러화를 기준통화로 환율을 표시하는 것을 유로피언텀즈(Euro-pean terms)라고 한다.
- 미국달러화가 기준통화로 사용되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거래의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유로피언텀즈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이 되며, 미국 내에서는 외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이 된다.

유로피언텀즈(Euro-pean terms)

: 미국달러화를 기준통화로 하여 환율을 표시하는 것

미국달러화가 기준통화로 사용되는 이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거래의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쓰이고 있기 때문

- •미국 이외의 국가 🔿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
- •미국 내 → 외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

아메리컨텀즈(American terms)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기준통화

-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표기방법
- 환율 = 기준통화/기변통화. 예: USD/KRW = 1,25O.OO
- 기준통화(Reference currency) : 환율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 (FC, Fixed currency)
- 표시통화(Quoted currency) : 기준통화 한 단위 당 표시되는 통화. (VC, variable currency)

기준통화=베이스통화 표시통화

통화상품	환율	의미
USD/KRW	1,200	1달러 1,200원
EUR/USD	1.1560	1유로=1.156달러
GBP/USD	1.5511	1파운드=1.5515달러
USD/CHF	1.0725	1달러=1.0725스위스프랑
USD/JPY	102	1달러=102엔

- ① 유럽식표시법(European Terms) : 직접표시 방법
- 은행간 거래에서 미화 1달러(기준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가변통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표시방법
 - 예) USD 1 = KRW1,295.OO USD 1 = JPY12O 이를 간단히 USD/KRW= 1,295, 혹은 USD/JPY = 12O 로 표시



2 American Terms

- 특정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미국달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방식을 아메리컨텀즈 (American terms)라고 한다.
- 이는 기준통화를 미국달러화로 놓지 않고 자국의 통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난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오랜 시간 기준통화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미국달러화를 부정하고, 본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영국, 호주 등이 좋은 예이다.
- 이렇게 아메리컨텀즈를 사용하는 국가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예전 영연방국가 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영국파운드화가 세계기축통화였기 때문에 모든 환율을 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계산해왔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온 영국인의 자존심이 외환시장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있다.

유로피언텀즈(Euro-pean terms)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기준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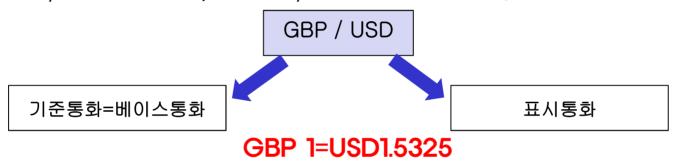
아메리컨텀즈(American terms)

: 특정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미국달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방식

아메리컨텀즈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통점

영국, 호주 등 모두 예전 영연방국가들이 사용 과거에는 영국파운드화가 세계기축통화였기 때문

- 미국식표시법(American Terms)
- 다른 나라 통화(기준통화) 1 단위에 대한 미 달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에) GBP 1 = USD1.5325 AUD 1 = USDO.5135 또는 EUR/USD = 1.1050, GBP/USD= 1.5325로 표시



-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첫째는 고객이 달러를 팔 때 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 팔고, 원화를 받는 경우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고객에게 비사게 팔아야 남는 장 사이므로 고객으로부터 싼 가격에 달러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고객이 달러를 살 때인데, 주로 개인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달러를 은행에서 시계 된다. 고객입장에서 보면 "파실 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는데, 그이유는 은행이 "달러"를 파는 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를 사온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달러를 팔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 팔고, 원화를 받는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고객에게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

고객으로부터 싼 가격에 달러를 매입하려 함.

고객이 달러를 살 때

주로 개인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달러를 은행에서 사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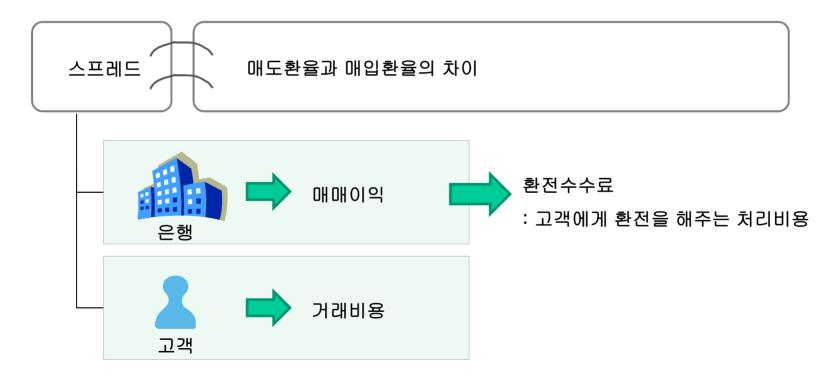
고객입장에서는 "파실 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됨

은행이 "달러"를 파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를 사온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

(3) 매입환율 vs. 매도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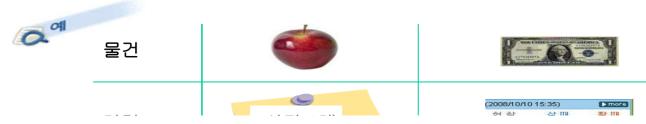
- Two way quotation
 - (매입율(Bid Rate) 매도율(Offer Rate))의 형태로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동시에 고시하는 것 예: USD/KRW 1,2O5.1O - 2O
- ① 매입률(Bid rate)
- 은행이나 외환틸러가 외환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가격이 됨. Market Maker입장에서 외국통화(European Terms의 경우 미탈러, American Terms의 경우 다른나라 통화)를 사고자 하는 환율로 전신환매입율과 현찰매입율 등이 있다.
- ② 叫도量(Offer rate, ask rate)
- 은행이나 외환틸러가 외환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가격.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가격이 됨. Market Maker의 입장에서 외국통화를 팔고자 하는 환율로서 전신환 매도율, 현찰매도율, 여행자수표매도율 등이 있다.
- ③ 스프레드(Spread):
 - 매입율과 매도율의 차이만 표시
 - 가격제시자(Market maker)인 외환틸러에게 매매이익의 원천이 됨.
 - 일반적으로 소숫점 아래 4자리로 표시(예, 외KRW,JPY,IDR 등은 소숫점 2자리)
 - Pip(또는 Point): 소숫점 4째자리를 말함
 (U\$/ :O.8580-O.859O spread =O.OOIO : 10 pips bid-asked spread
 - Big Figure: 소숫점 2째지리를 말함

-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차이를 스프레드(bid-offer Spread, exchange margin)라고 부른다.
- 스프레드는 은행(dealer)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이익(외환거래 수수료, premium)이 되며, 이는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 변동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환위 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시중은행의 경우 이 스프레드를 '환전수수료'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 우리는 은행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율시세표이다.
- 혼율시세표를 보면 "사실 때", "파실 때" 두 가지 가격이 공시되어있다.
- 이는 외화(달러, 엔화, 위엔화 등)를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 외화를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 우리는 은행에 가면 단순히 '환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달러)를 교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환에서는 "외화를 물건으로"생각하고 "우리나라 돈을 화폐"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올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외환거래는 "달러"라는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과일가게에 사과 값이 얼마인지 써 붙여놓은 것 처럼, 은행의지점에도 손님이 '달러'를 "사실 때" 가격과 "파실 때" 가격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방향고시(two way quotation) 이라고 함





- 환율표를 살펴보자. 은행에 가서 환율표를 봤을 때 과연 외화의 가격이 [살 때] 가격 과 [팔 때]가격 중 어느 가격이 높은가? 맞다.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보는 장시를 하지 않는다.
- 달러를 시러 온 고객에게는 비싸게 팔고(고객이 시실 때 가격), 달러를 은행에 팔러 온 손님에게는 싼값에(고객이 파실 때 가격) 사들이는 것이다.



달러를 사러 온 고객에게는 비싸게 팔고(고객이 사실 때 가격), 달러를 은행에 팔러 온 손님에게는 싼값에(고객이 파실 때 가격) 사들임

실제 외환시장의 환율

- B.P.	Loca	itime	O GNT		i	۸.,		뉴의	목종가:GMT	21.8	아시아종가:GM	T 9AI
통화	Bid	Ask	Time	Į.	욕대비	Bid 직전가	High	Low	높 ^옥 증가	아시아 종가	은행명	City
JPY	122,93	122.96	23:55:44	A	0.21	122.94	123.12	122.52	122.72		Saxo Bank	COP
EUR	1,3311	1,3316	23:57:28	7	0.0001	1,3311	1.3323	1.3277	1.3312	1,3300	Geneva Inter	MEA
EUR/JPY	163.62	163,66	23:57:26		0.27	163.65	163.78	163.06	163.35	163.50	Realtime For	GEN
GBP ▼	1.9685	1,9689	23:57:29	7	0.0046	1,9686	1.9735	1.9656	1.9731	1,9687	Union Bank o	ZUF
CHF 🔻	1.2446	1.2450	23:56:27	A	0.0001	1.2445	1.2462	1,2432	1.2445	1.2447	Realtime For	GEN
AUD 🔽	0,8354	0,8357	23:57:28	7	0.0051	0,8352	0.8413	0.8331	0.8405	0.8368	Saxo Bank	COF
NZD 🕝	0.7505	0.7510	23:57:25	7	0.0011	0.7501	0.7526	0.7469	0.7516	0.7504	Realtime For	GEN
CNY 🔽	7.6155	7.6355	19:08:51	7	0.0165	7.6230	7.6250	7.6155	7.6320	7,6290	Dresdner Ban	FF1
HKD 🔽	7.8167	7.8172	23:57:28	7	0.0001	7.8166	7.8175	7.8136	7.8168	7,8159	Saxo Bank	COF
CAD 💌	1.0683	1.0688	23:57:14		0.0024	1.0682	1.0688	1.0646	1.0659	1.0658	Realtime For	GEN
SGD 🔽	1.5418	1,5426	23:56:53	7	0.0010	1.5419	1.5436	1.5405	1.5428	1.5427	Realtime For	GEN

트웨어	현	찰	송금(전	선신환)	T/C	외화수표	매매	환가
통화명	사실때	파실때	보내실때	받으실때	사실 때	파실 때	기준율	료율
미국 USD	985.55	951.65	978	959.2	980.22	957.49	968.6	6.37
일본 JPY 100	831.4	802.82	825.11	809.11	825.28	808.71	817.11	1.9775
유로통화 EUR	1178.23	1132.27	1166.8	1143.7	1172.57	1142.29	1155.25	4.408
영국 GBP	1722.85	1655.63	1706.13	1672.35	1714.57	1669.35	1689.24	6.49
스위스 CHF	754.9	725.46	747.58	732.78	751.28	732.19	740.18	2.8766
캐나다 CAD	860.52	826.94	852.16	835.3	856.38	834	843.73	5.565
호주 AUD	729.24	700.8	722.17	707.87	725.74	706.42	715.02	7.4325
뉴질랜드 NZD	658.81	633.11	652.41	639.51	655.64	637.84	645.96	9.355
홍콩 HKD	127.29	122.33	126.05	123.57	0	123.4	124.81	5.765
스웨덴 SEK	126.47	120.31	124.62	122.16	0	122.03	123.39	3.865
덴마크 DKK	158.7	150.96	156.37	153.29	0	153.1	154.83	4.525
노르웨이 NOK	147	139.84	144.85	141.99	0	141.83	143.42	4.225
사우디 SAR	268.6	237.61	260.85	255.69	0	255.18	258.27	7.135
쿠웨이트 KWD	3448.27	3050.4	3348.8	3282.5	0	3275.53	3315.65	7.575
바레인 BHD	2673.06	2364.63	2595.95	2544.55	0	2540.05	2570.25	6.305
아랍에미레 AED	274.25	242.62	266.34	261.08	0	260.59	263.71	6.785

주) 외환은행 홈피 (외환은행 → 환율조회 → 엑셀 연계)

※ 현재환율 외에도 평균환율, 기간환율 등 조회 가능함 ['86년~]

	매입환율	매도한율
USD/KRW	1.130.00	1.130.50

누가? (가격제시자 즉, 외환은행이) 무엇을? (기준통화를) 어떻게? (매입하는 가격=매입환율, 매도하는 가격=매도환율)

은행	매입환율	매도환율
	1,130	1.130.50
USD/KRW	USD buy	USD sell
	KRW sell	KRW buy

<u>징</u>	매입환율	매도환율
	1,130.00	1.130.50
USD/KRW	USD sell	USD buy
	KRW buy	KRW sell



A은행의 매입률과 매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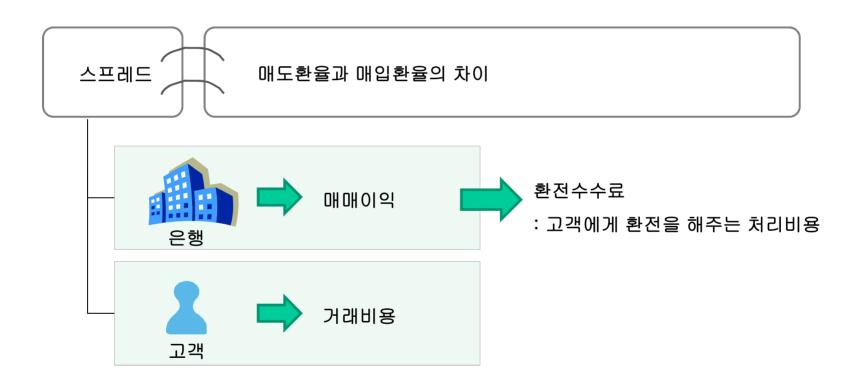
통화	Bid	Offer
USD/SFR	0.9946	0.9950
당신(고객)이 SFR을 매도하	고자 한다. 적용되는 환율은 ?(0.	9950)

- ARE YOU SURE?
- You Sell SFR = You Buy USD
 You Buy USD = Bank Sell USD
- Bank가 당신(고객)에게 USD를 Sell 하는 환율은?(0.9950)
- 즉, 당신은 O.995O에 USD매수/SFR매도.
 O.9946에는 USD매도/SFR매수!



- ③ <u>소</u>프레드(Spread) :
 - 매입율과 매도율의 차이만 표시
 - 가격제시자(Market maker)인 외환틸러에게 매매이익의 원천이 됨.
 - 일반적으로 소숫점 이래 4자리로 표시(예, 외KRW,JPY,IDR 등은 소숫점 2자리)
 - Pip(또는 Point): 소숫점 4째자리를 말함
 (U\$/ :O.858O-O.859O spread =O.OOIO : 10 pips bid-asked spread
 - Big Figure: 소숫점 2째자리를 말함

-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차이를 <u>스프레드(Spread</u>)라고 부른다.
- 스프레드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이익이 되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 실제로 시중은행의 경우 이 스프레드를 '환전수수료'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CASE: 선물환의 활용(환리스크 Hedge)

K상시의 미국 현지법인은 영국으로부터 Pound1,000,000상당의 자재를 수입하고 대금은 6개월 후 파운드화로 지급키로 하였다. 현재 거래은행인 ABC, NY가 고시하고 있는 환율 및 금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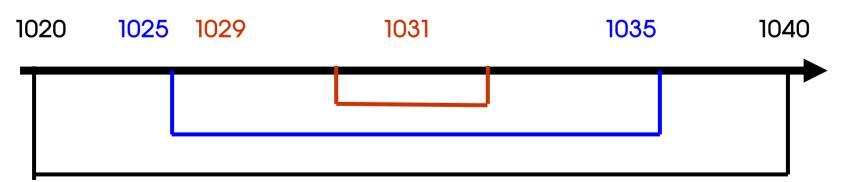
GBP/U\$ 1.4430 - 40 3m FWD 41 - 44

- 고시된 선물환율로 Hedge를 할 경우 6개월후 지급될 U\$금액은?
- Hedge 전 및 Hedge 후의 K상시의 GBP/U\$활율에 대한 Risk Profile은?
- 6개월후의 환율이 1.45OO이라면 헤지할 경우와 헤지하지 않을 경우의 손 익은?

스프레드(Spread)

-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
 - USD/KRW=1020.00-1040.00
 - 은행(Price Maker)의 외환수익 원천
- 스프레드의 크기가 작을수록 <u>착한</u> 가격
 - 가장 좋은 가격 = 스프레드가 O인 가격

	USD/KRW
삼순 은행	1020 - 1040
현빈 은행	1025 - 1035
다니엘 에니 은행	1029 - 1031



스프레드의 크기

- 거래가 많은 통화는 스프레드가 작고, 거래가 적은 통화는 스프레드가 크다.
- 외환시장이 불안정하면 스프레드가 커지고, <mark>외환시장이 안정적이면</mark> 스프레드가 줄 어든다.
- 선물환의 스프레드 〉 현물환의 스프레드

(4) 크로스환율(Cross Rate)과 재정환율(Arbitrated Rate)

- ① 크로스환율(Cross Rate)
-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와 교환되는 외국통화로 환율표시함
- 크로스환율은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는 미달러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함 (GBP/EUR, EUR/JPY, CHF/EUR 등)

② 재정환율(Arbitrated Rate)

- 특정통화와 한 외국통화간의 환율을 기준환율로 정하고, 기준이 된 외국통화와 다른 외국통화간의 크로스환율과 기준환율과의 관계로부터 재정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하며 Parity Rate 또는 간접환율이라고도 함
- 예컨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환율을 결정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를 기준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결정하고자 하는 통화의 환율을 간접비교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함
- 따라서 재정환율은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계산된 환율을 말하는 것임

이번에는 재정환율에 대해 살펴보지.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의 돈이 매일매일 거래되는 것은 이닐 텐데 어떻게 환율이 결정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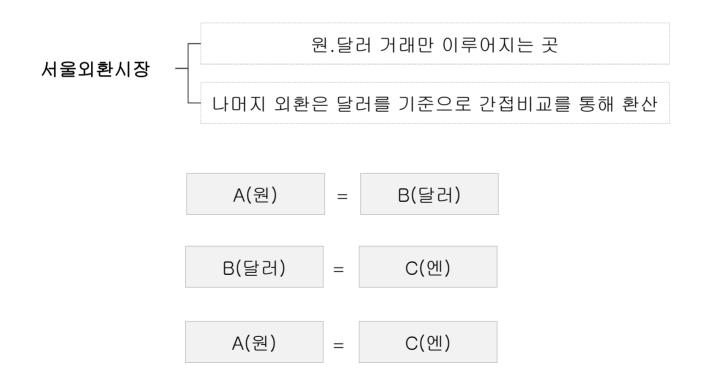


전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의 돈이 매일매일 거래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환율이 결정될까??

그건 서울외환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외환시장은 원.달러 거래만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머지 외환은 달러를 기준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다른 통화의 달러 환율과 간접비교를 통해 환산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 예를 틀어 서울외환시장이 원.달러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고 엔화는 거래되지 않는다 고 가장하자
- 그런데 엔화의 환율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일단 서울외환시장에거 거래되고 있는 원/탈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탈러/엔화의 환율을 교차하여 원/엔화의 환율을 계산하는 것임



Cross Rate

- 재정환율(Arbitrated Rate)
- USD가 포함되지 않은 환율
 - JPY/KRW, JPY/CHF, CNY/KRW, EUR/KWD···
 -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해당환율의 움직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계산된다.
- USD/JPY=121.00이고 USD/KRW=925.00일 때

```
USD1 = JPY121.00 = KRW925.00
JPY121.00 = KRW925.00
JPY1 = 925.00÷121.00=KRW7.6446
JPY/KRW = 7.6446…, 이것이 Cross Rate
```

Cross Rate

통화	매입률	매도율
USD/KRW	+USD/-KRW	-USD/+KRW
USD/JPY	+USD/-JPY	-USD/+JPY
JPY/KRW	+JPY/-KRW	-JPY/+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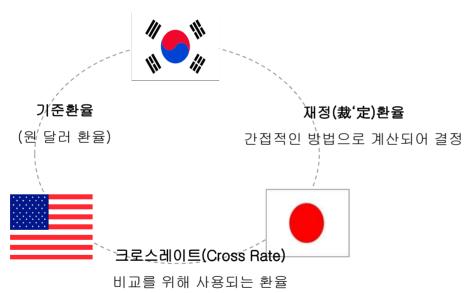
통화	매입률	매도율
USD/KRW	+USD/-KRW	-USD/+KRW
USD/JPY	+USD/-JPY	-USD/+JPY
JPY/KRW	+JPY/-KRW	-JPY/+KRW

Cross Rate

통화	매입률	매도율
USD/KRW	925.00	925.30
USD/JPY	121.10	121.20
JPY/KRW	925.00/121.20 = 7.6320	925.30/121.10 = 7.6408
통화	매입률	매도율
USD/KRW	+USD/-KRW	-USD/+KRW
GBP/USD GBP/KRW	+GBP/-USD +GBP/-KRW	-GBP/+USD -GBP/+KRW
E = L o		nii C O
통화 Cross		매도율
USD/KRW	925.00	925.30
GBP/USD	1.9650	1.9660
GBP/KRW	925.00*1.9650 = 1817.63	925.30*1.9660 = 18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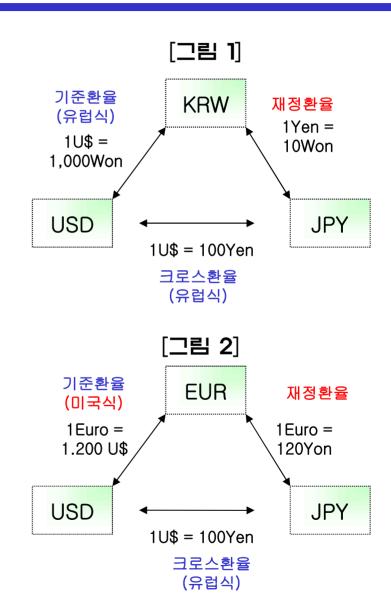
< 가례 1>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라고 할 때, 원/엔의 환율을 계산하면 [그림 1]과 같음 JPY/KRW=(USD/KRW)USD÷(USD/J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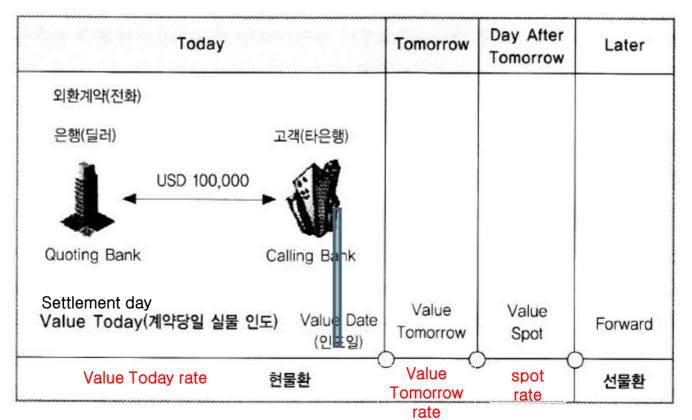
〈^i례 2〉

유럽의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이 1.200달러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라고할 때, 앤/유로의 환율을 계산하면 [그림 1]과 같음 EUR/USD=(USD/JPY)×(EUR/JPY)



(5)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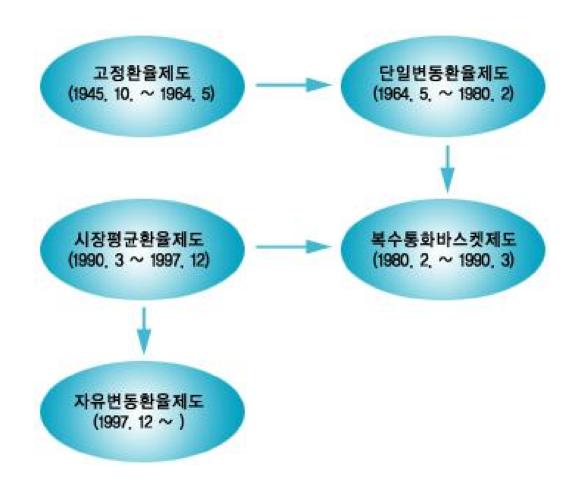
- 현물환과 선물환
 - 현물환(spot exchange) : 외국환 매매계약과 동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받는 환어음을 말함
 - 선물환(forward exchange)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액의 외국환을 일정 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환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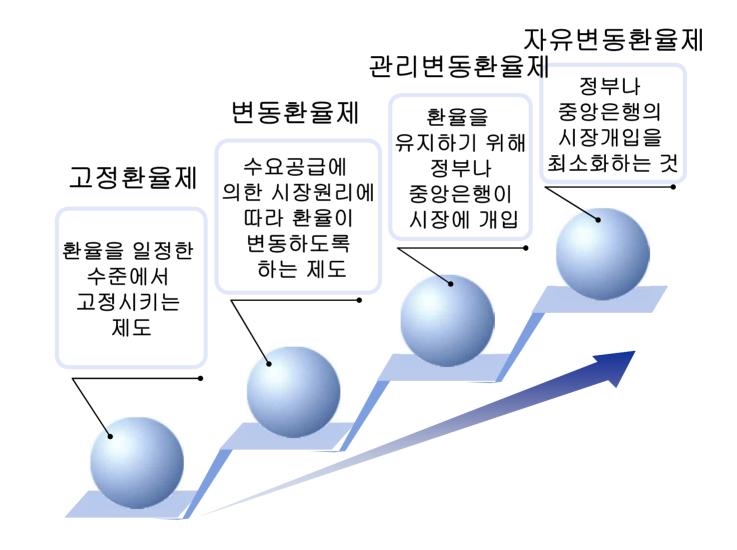
(6) 시가/중가 및 최고가/최저가

- ① 시가(penning rate) : 특정 외환시장에서 당일의 시초 거래에서 결정된 환율
- ② 중가(closing rate):당일의 최종 거래에서 결정된 환율, 특정외환시장의 환율을 말할 때는 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많음
- ③ 최고가 : 특정한 날 특정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특정 외환거래의 가격 중 최고치를 일중 최고가(daily high rate)라고 함
- ④ 최저가: 일중 최저치를 최저가(daily low rate)라고 함

환율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과정



환율제도의 변천

* • • • • • • •	A 1447171	1.11.0		
<u> </u>	시행기간	나 용		
고정 환율제도	1945-1964	정부가 원화의 대미달러환를 일정범위 내로 고정		
단일변동 환율제도	1964-1980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외환증서의 매매율을 그대로 환율에 변동시키는 제도이나 실질적으로 미달러 화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도		
복수통합 바스켓제도	1981-1990	환율을 미달러화뿐만 어니라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의 국제시세에 연동시미는 환율제도		
시장평균 환율제도	1990-1997	전일자 외국환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당일의 시장평균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환율변동 제한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유변동 환율제도	1997.12-현재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환율변동 제한폭이 없이 환율이 결정		
8	-121	H A 기구나		



■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1) 고정환율제도(fixed, pegged exchange rate system)

- 정부당국이 특정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로, 환율에 대한 확실성 제고로 국제거래가 촉진되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불 안전성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통화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하여 무역수지, 물가, 고용, 자원배분의 왜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예를 들어 끊임없이 경상수지 적지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혹자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환율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물경제를 왜곡하는 현상 도 나타날 수가 있음. 따라서 대외거래를 하는 초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 조절되고,국가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함
- 그러나,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경제행위 위축되고, 국제 단기 투기자본의 이동으로 환율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앙은행이 신축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을 운용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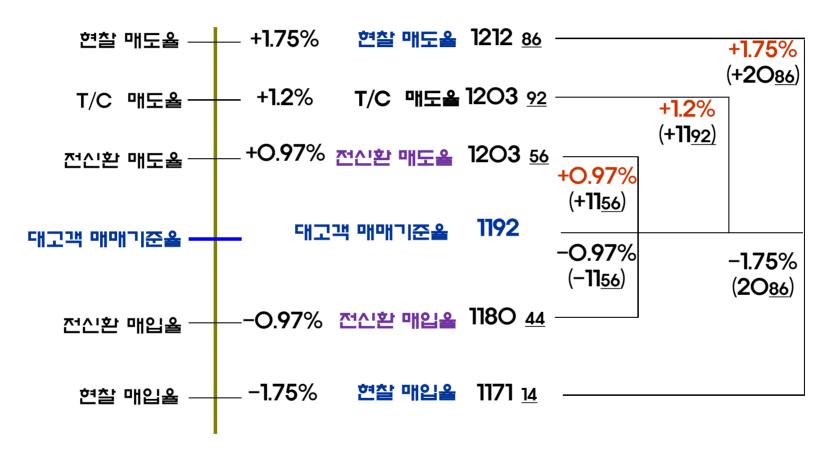
79

3.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 이다.
- 우리나라는 1945년이후 미 군정체제 하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1964년까지 이어암
- 1964년부터 단일변동환율제도을 시행했으나 거의 사실상 변동되지 않는 그런 변동환 율제도였으며 8O년까지 유지됨
- 1980년에 들어 조금 더 변동환율에 더 가까워진 복수통화 Basket제도를 채택하여 1990년까지 10년 동안 사용.
- 199○년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당시의 시장환율제도는 미리 변동폭을 정해놓고 1일 그 변동폭까지만 변동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변동환율이지만 변동이 심하게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의시장 변화가 환율에 반영되는데 time rack(시차)가 생기는 그러한 제도였음
- 이것이 IMF 국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도에 가서 IMF의 권고를 받아 완전자유변동환 율제도로 바뀌었음. 그래서 시장평균환율제도를 그대로 채택하되 변동폭의 제한을 없 앰으로써 얼마든지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달러당 100원 200원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구조

구분	혼율	용도		
	현찰매도율	외화 현찰 매도		
매도율	여행자수표 매도율	여행자수표 매도		
	전신환 매도율	당발 송금, 타발 추심, 수입 신용장 결제		
매매기준을				
매입률	전신환 매입률	수출환어음 매입, 외화수표 매입, 티발 송금 지급, 당발 추심		
	여행자수표 매입률	여행자 수표 매입		
	현찰 매입률	외화 현찰 매입		



(1) 매매기준율

- 외환거래규정 제2조에서는 메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금융 결제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 매매 중 익익영업일(value tomorrow rate)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외국은행간 장내거래율)과 그 거래 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환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즉 시장평균 환율을 매매기준율로 하고 있음
- 외국환은행간 외환거래는 자금중개실을 통한 장내거래와 외국환은행간 직접 거래하는 장외거래가 있는데, 이 중 장외거래는 임의조작이 가능하므로 시장평균환율의 산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원/달러 시장평균환율 산출요령(미달러화의 시장평균환율)					
외환↔제일 USD 2O백만	@1,200.30	\24,006,000,000			
^[티↔국민 USD 5백만	@1,200.40	\6,002,000,000			
조홍↔한일 USD 10백만	@1,200.50	\12,005,000,000			
외홛↔한미 USD 15백만	@1,200.20	\12,300,000,000			
제일↔조흥 USD 8백만	@1,200.30	\18,003,000,000			
합계 USD 58백만		\69,618,400,000			

시장평균환율=\69,618,400,000÷58,000,000=1,2003174(소수점 2번째 지리 반올림) @1,200.32

(1)-1 재정된 매매기준율(미화 이외의 기타 통화 재정환율)

- 금융결제원이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미탈러화 이외 통화와 원화간의 환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대고객매매율의 준거로 이용한다. 재정환율은 현재 28개 통화에 대해 고시하고 있다.
- 매매기준율과 마찬가지로 매매중개기관의 장(금융결제원)이 통화별로 매일 영업 개시 3O분 이전에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은행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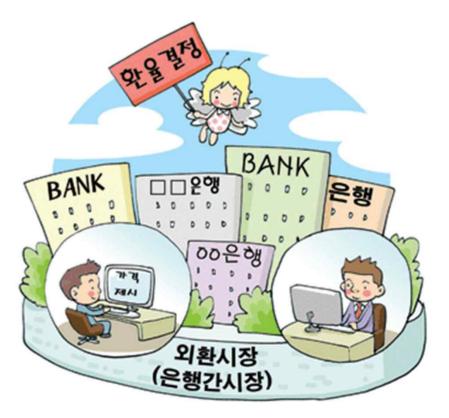
원/기타퉁화 재정환율 산출방법(기타퉁화의 재정환율)							
KRW/USD 기준환율	국제외환시장환율(기타통화/USD)	KRW/기타통화 재정환율				
	JPY 120.40/50	120.45	996.50				
800.30	EUR 0.9845/50	0.9848	1,182.06				
	GBP 1.5485/90	1.5488	1,859.02				

(2) 기준환율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 매입율 및 재정환율을 정할 수 있음(법 제5조)

(3)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 외국환은행간 매매율(inter-bank rate)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외국환은 행들간의 외환거래에 의해 외환시장에 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환율을 말함
-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회피와 외화자금의 과부쪽을 조정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환율을 말함



① 은행간 환율 (Inter-bank exchange rate)

-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 은행간 거래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은행이나 기타금 융기관만 참여하는 장내거래와 일정한 장소 없이 행하는 점두거래인 장외거래가 있다.(도매가격)
- 은행간 환율은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매초마다 변동하고 있다. 이 은행간 환율은 거액의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은행간 환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적용할 대고객환율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은행간환율 (interbank rate)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

장내거래 : 일정한 장소에서 은행이나 기타금융기간만 참여하는 거래

장외거래: 일정한 장소 없이 행하는 점두거래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초마다 변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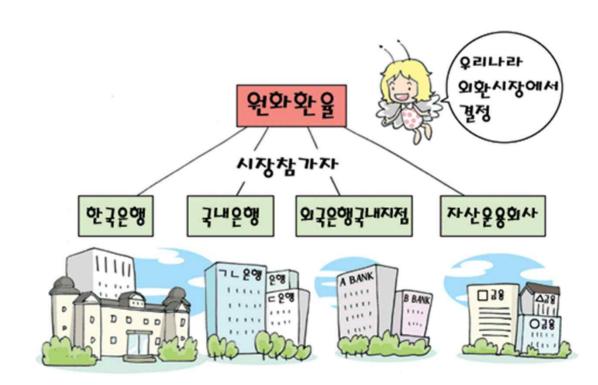
거래의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짐

은행이 고객에게 적용할 대고객환율을 결정하는 기초가 됨



(4)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국환거래를 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말함
- 대고객 매매율은 외국환은행이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환은행간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고객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찰매매율, 전신환매매율, 환어음매매율, 수입어음결제율, 수표매입률, 여행자수표매도율이 있음



② 대고객환율(Customer exchange rate)

- 소매시장과 같다. 은행이 수출입업자, 개인 등 일반고객과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 이때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에 약간의 수수료를 붙여서 달러 값을 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살 때는 매매기준율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것이다
- 은행간 시장환율을 기초로 결정.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금융결제원에서 시장평균환율 (USD의 경우)과 재정환율(USD이외의 기타통화)을 고시하면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이 환율에 일정한 마진율을 가끔하여 대고객환율을 고시.

대고객환율(customer exchange rate)

소매시장과 같음

은행이 수출입업자, 개인 등 일반고객과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에 약간의 수수료를 붙여서 달러 값을 결정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살 때는 매매기준율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이유

❖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 ① 매매기준을 (MAR, Market Average Rate)
 - 전일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시장평균환율
 - 거래시간 이전(O9시)이면 MAR 거래도 가능
- ② 전신환매매율 (T/T, Telegraphic Transfer)
 - 전신송금 등에 적용되는 환율. 기본 Spread는 매매기준율 대비 약 1%
 - 전신환 매입율(T/T Buy)과 전신환 매도율(T/T Sell)이 있으며, 매입과 매도는 은행의 관점임
- ③ 현찰매매율
 - 외화 현찰매매시 적용되는 환율. 기본 Spread는 매매기준율 대비 약 1.5%
 - 현찰매입율과 현찰매도율이 있으며, 매입과 매도는 은행의 관점임

- 1) 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buying & selling rates : T/T)
- 외환을 전신으로 결제하거나 또는 지산이나 채권이 통화로 전환되는 것이 즉시 기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 이 경우에는 자금결제가 1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환어음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요인이 개입되지 않는 의미에서 순수한 대고객환율이 되며, 대고객매매의 기준 매매율이 된다.

①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 외국환은행이 자금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신환(T/T), 우편환(M/T), 송금수표 (D/D)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서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 자행에 도착되는 수단인 지급인도방식(D/P)이나 인수인도방식(D/A)의 환어음을 결제하는 등의 환매도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 예컨대 전신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송금대전을 받고 외환을 매도함과 동시에 지급은행 앞으로 전신으로 송금환의 지급을 지시함으로써 송금은 행의 해외예치계정에서 즉시 지급되도록 한다. 따라서 송금은행은 송금환의 매도와 관련하여 자금부담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는다.

② 전신환매입률(T/T buying)

- 환어음이 지급은행에 제시되어야만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bill of exchange at sight or demand)의 매입에 적용되는 환율
-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은 환어음을 먼저 원화로 지급하고, 이를 해외의 개설은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되므로 원화의 지급과 외화의 상환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 그러나 일람출급환어음은 매입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 환어음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환기료라고 하며, 현재 연환기료율은 통화별 LIBO+은행별 실질조달 기산금리의 공식에 의해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환율을 결 정하고 있다.

일람출급환어음 매입률 = 전신환매입율-(장부가격 $\times 10/360 \times$ 연환가요율)

■ 다만 일본 엔화, 홍콜 달러화, 싱가프로 달러화, 말레이시아 링키트화의 경우에는 우송기간을 9일로 하며, 재입거래의 경우에는 통화에 관계없이 12일을 적용하고 있다.

3) 기한부 환역음매매율(usance rate)

-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어음을 매입할 때 환어음 일람 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 외환은행은 지급이 유예되는 어음기간(Usance 기간) 동안의 금리를 일람불출급 환어음매입율에서 차감하여 적용한다.
- 일람후 정기출급인 경우
-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장부가격×어음기간/36O)×연환가요율)
- 확정일자 후 정기출급인 경우
- 전신환매입률-(장부가격×어음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36O× 연환가요율)

4) 수입환어음결제율

- 신용장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송부되면, 해외의 환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행계정(our a/c)에서 동 어음대금을 차기함으로써 상환하고, 수입자에게 동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시점과 수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 통상 이 기간은 10일로 하고 이율은 일람출급환어음매입의 경우와 같다.
- 수입어음결제 = 전신환매도율+(장부가격×10/360일×연환가요율)
- 다만, 결제통화가 일본 엔화, 홍콩 탈러화, 싱가포르 탈러화, 말레이시아 링키트 화인 경우는 우송기간을 9일로 한다.

5) 여행자수표(T/C) 매도율

- 은행이 원화를 대기로 여행자수표를 고객에게 매도할 경우 적용하는 환율로 전 신환매도율과 현찰매도율의 중간에서 고시된다.
- 여행자수표매도율의 결정방법
- 통화별 대고객매매기준율+(대고객매매기준율×적정 스프레드율)
- 적정스프레드 : 통상 미탈러화는 10전 미만 절사, 기타 통화는 전미만 잘 사하여 은행간에 자율적으로 스프레드율을 달리하고 있음

6) 현찰매매율

- 외화현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의 대상이 되는 외화현찰의 보관비용, 운송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외화자산 운용면에서도 외화현금시제액은 비수익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부담과 손실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한 환율을 말함
- 따라서 현찰 매도율과 매입률은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의 최고율과 최저율 사이가 된다.
- 대고객 현찰매매율의 결정방법
- 매도율 : 통화별 대고객매매기준율+(통화별대고객매매기준율×적정 스프레드율)
- 매입률: 통화별 대고객매매기준율-(통화별대고객매매기준율×적정스프레드율)
- 적정 스프레드는 통상 미탈러화는 10전 미만 절시, 기타 통화는 전미만 잘시하며,
 은행간 자율적으로 스프레드율을 달리하고 있다.
- 현차매매율은 지폐와 주화를 구분하여 고시한다.

•

7) 장부가격

- 장부가격(Book rate)이란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를 원화 환산하여 징수하거나 동종 외환 거래간 대체거래시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함
- 예를 들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개설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O.18%), 이때 원회환산율은 장부가격이 적용되며(신용장금액×장부가격 ×O.18%), 어떤 회사가 해외로부터의 송금으로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경우 대체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때 원화대차대조표에도 금액이 예상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장부가격이 적용된다.
- 통화별 매매기준율에서 원단위 미만을 절시하여 산출한다.
- 최근들어 대부분의 외국환은행은 대고객수수료 산출시 장부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별 매매기준율을 사용하고 있다.

외환실무론

제6장 국제통화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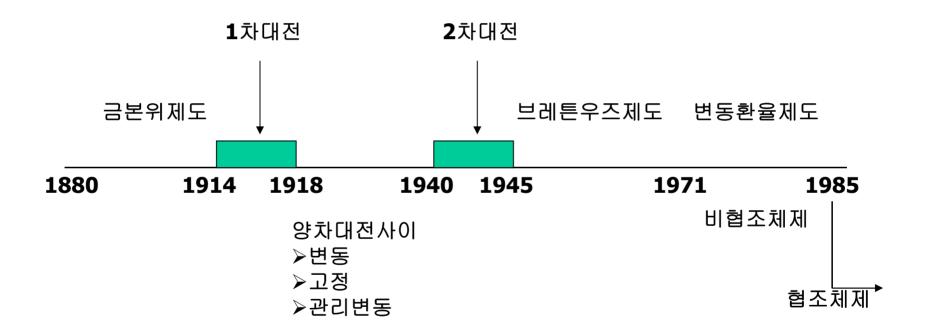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제6장 국제통화제도

- 1. 국제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 2. IMF 체제의 성립과 변혁
- 3. 유럽경제통화통합(EMU)
- 4. SDR(특별인출권)

- (1) 국제퉁화(international currency)
- ① 국제통화의 개념
 - 국제간 상품, 서비스 및 지본이동에 따르는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통화 를 말함
 - 예: 미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 특별인출권(SDR)
- ②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의 기본조건
 - 당해 통화 발행국의 경제적 규모가 켜야 함
 - 당해 통화의 운용, 다른 통화로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발달한 금 용시장이 존재해야 함
 - 당해 통화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신인이 있어야 함
- (2) 국제통합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 국제결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기간에 합의된 일련의 규칙, 관습, 수단, 도구 및 조직을 말하며,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는 국제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극 대화시켜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 국제통화제도는 대외결제를 위한 지급수단인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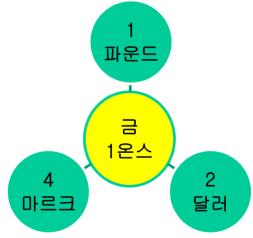
국제통화제도는 세계경제의 변화, 선후진국가간이 이해 상충, 각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찬과정을 거쳐왔음



(1) 금본위 제도의 의의

- 금본위제도란 화폐 한 단위의 가치를 일정량의 금의 가치와 결부시키는 제도를 말함, 즉 금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자국화폐의 가치(환율)을 결정하여 금을 국제적 지급수단으로 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에서 교환과 지급의 매개수단으로 삼는 제도를 말함
- 금본위제도는 1816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금태환이 불가능하면서 유지할 수 없게 됨





1파운드= 2달러= 4마르크

- 1) : 금본위제도의 유형
- 금본위제도는 그 구체적인 법제와 운용의 실제에 있어 몇 가지로 나누어짐
 - ① 금화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 : 금화가 주조되어 그것으로 태환이 보증되는 제도
 - ② 금괴본위제도(gold bullion standard) : 금화를 대신하여 금괴로의 태환에 용하는 제도
 - ③ 금환본위제도(god exchange standard) : 금본위국에서 발행된 금환 또는 그로부터 발행된 금환을 일정한 시세로 매매하는 수단으로 국제화폐의 1단위와 금일정량과의 사이에 등가관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함
 - ④ 금핵본위제도(godlkernwahtung) : 금이 핵심으로서만 존재하고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금괴본위제도와 금환본위제도를 통합하여 일컫는 칭호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1925~1931)

 통화와 금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금과의 태환이 보장되는 통화와 그 나라의 통화가 연결되는 제도



2) 금본위제도의 붕괴

- ① 금환본위제도는 금본위제도에 비해 국제수지 자동조정기능이 미약하고, 국제유동 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② 이러한 문제점은 1929년 세계공항을 계기로 전면에 부각되었음, 특히 영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각국이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요구함에 따라 1931년 영국이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정지한 데 이어 프랑스, 미국까지도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금환본위제도는 전면적으로 붕괴됨
- ③ 이로써 금본위제도는 불환지폐제도로 이행하게 됨

- (1) 브레튼우즈 체제(1946-1971년)
- ①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통합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미국의 브레튼우드(Bretton Woods)에 모여 국제통합기금(IMF)와 세계개발은행(IBRD)를 설립할 것을 결정함
 -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적 목표는 국제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계경제의 확대와 균형의 유지를 실현하는 데 있음
 - 이러한 요청은 193○년대 세계대공황기에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수입 제한조치 그리고 폐쇄적인 블록경제권의 산발적 형성이 제2차대전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
 - 브레튼우즈 체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IMF와 IBRD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GATT가 성립되었으며, IBRD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국제금융공사와 국제개 발회의가 설립되었다.

- ② 브레트우즈 체제의 운용
 - 이 체제는 각국의 통화가 미국 달러화를 통해 금과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는 금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 system)를 채택함
 - 이에 따라 미국의 달러화기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역활을 하게됨
 - 즉, 미국의 달러화만이 금과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통화는 달러화와의 평가를 통해 금에 간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 이런 의미에서 금,달러본위제라고도 함



- 1944년7월, 미국의 브래튼 우즈에서 44개국의 대표들
 - → 2차 대전 후 국제 금융 질서회복에 대해 논의

고정환율제도



IMF & IBRD

"국제 금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고정 시켜야 함"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달러의 가치를 금과 연결시킴



"달러를 매개로 하여 통화와 금이 연결되는 금환본위제도 실시"

② 브레트우즈 체제의 붕괴

-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국제유동성은 금 생산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에 의해 공급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IMF의 신용공여 제도로 보완 되었다.
- 그러나 금 생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IMF의 신용공여 역시 한계가 있어 국제 유동성은 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공급되는 달러화에 의존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미국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닉슨독틀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말았다.
-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고정환율제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자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주요 선진국 들은 모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EC는 공동변율환율제도, Snake

System을 도입함)



- (2) 스미소니언 협정(Smithonian Agreement)
- ①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1971년 선진 1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워싱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각국 통화의 평가를 재조정하고 중래의 금 또는 미국달러 대신 신축성있는 기준을 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미달러화의 평가를 절하하고 환율변동폭을 종래 평가의 상하 각 1%에서 기준율의 상하 2.25%,로 확대하는 것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스미소니언체계라고 함
 -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O2달러로 미달러의 평가절하와 동시에 마르크 화와 엔화의 평가절상
- ② 스미소니언 체제의 붕괴
 - 스미소니언 체제도 금태환성이 결여된 미탈러화를 계속 평가의 기준으로 삼
 음에 따라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
 - 그 결과 각국 통화의 평가조정으로 잠시 주춤하였던 투기적 자본이동이 저 재개되었으며, 결국 영국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972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고, 이에 이어 미국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일본 및 유럽공동체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등이 일어나면서 스미소니언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 (3)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
- ①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
 - 스미소니언 협정의 붕괴에 따라 1976년 자메이카(Jamaica) 회의에서 각국 이 자유롭게 변동환율제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킹스턴 체계가 출 범하게 되었다.
 - IMF는 금과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SDR)이라는 가상화폐를 만 들어 금의 역할 대신하도록 하고, SDR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그러나 특정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SDR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요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SDR본위의 국제통화질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 또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경제의 불황,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달러가치의 인하조치, 투기적 국제자본의 대두 등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1) EMU와 EURO

-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등 달러화의 불안 지속으로 인한 유럽의 환시장의 동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존도가 높은 역내국간 통화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1999년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을 발족시키는 등 단일경제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함
- EMS의 출범과 동시에 단일 통화인 유로화(EURO)를 도입하여 2012년 현재 17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4. SDR(특별인출권)

(1) SDR의 개념

- SDR(special drawing rights)이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함.
- 금이나 미달러화의 국제유동성 부족과 기축통화의 신인도 저하에 따른 국제통화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IMF가 창출한 가상화폐로서 제3의 통화로 간주되 고 있다.
- SDR은 IMF가맹국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되며, 특정국이 국제수지 적 자상태에 빠져있을 경우, SDR을 발행하여 외국의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 함으로서 필요한 외화를 입수, 그 외화를 국제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 미한다.
- 국제수지 흑자국은 SDR의 인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 SDR의 가치는 당초 금에 의해 표시되어 1달러와 같은 O.88671g의 순금과 등기로 정해졌으나, 달러의 평가절하로 1973년에는 1SDR=1.2635달러가 되었다.
- 그 후 선직국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됨에 따라 1974년 이후부터 무역비중이 큰 16개국의 통화시세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복수통화펙(peg)방식 표준통화바 스켓방식에 의해 매일 계산하여 표시하게 되었다.
- 1980년부터는 표준 바스켓의 통화를 16개 국에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통화로 축소하여 SDR표시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2) 유러화의 가치

- (3) 유러달러 및 유러 통화의 개념
 - 유러달러(Euro dollar)란 미국 이외의 은행, 주로 유럽의 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달러 자금을 의미함
 - 일반 예금과는 달리 이 달러는 무국적이며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예입 및 대부가 모두 국경울 넘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유러달러는 유럽 각지의 금리차나 평가조정에 의한 환차익을 따라 이동하는 핫머니(hot money)의 성격을 갖고 있다.
 - 유러달러 거래의 중심지는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도시이지만, 현재는 홍콩, 싱가포르에 예치되어 있는 미달러 표시예금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유러달러라는 표현보다는 유러 통화(EurO-currency)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집시커런시(Gypsy currency)라고도 한다.
 - 유러통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 달러화로 지급해야 할 단기부채라는 점
 - 둘째,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은행의 채무라는 점이다.
 - 유러 탈러시장이란 유러 탈러자금의 소유자로부터 단기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의 최종수요자에게 대출하는 중개시장 또는 유러 탈러 자금을 차입, 대출하기 위하여 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의 두 가지 시장을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주로 후자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감사합니다

